

# 단기 상승 후 쉬어간 반도체



[Market Analyst] 강진혁 선임연구원 ☎ (02) 3772-2329 ✉ kjinhyeok@shinhan.com

## Micron 급락에 국내 반도체 매출 출회

금일 KOSPI, KOSDAQ은 각각 -0.4%, +0.1% 등락했습니다.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'쿼드러플 위칭데이'에도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. Nvidia(-0.7%)가 GTC 2025 행사 전후로 반등에 실패했고, Micron(-8.0%)도 호실적 발표에도 향후 수익 전망 우려에 장중 큰 폭 하락 마감한 점이 국내 반도체 차익실현 재료로 작용했습니다(삼성전자 -1.9%, SK하이닉스 -1.9%). 다만 미국이 예정된 관세 전략을 조정해 자동차, 의약품, 반도체 등 산업별 광범위 관세보다는 국가별 협상을 통한 상호 관세를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(WSJ) 등에 자동차 강세 (현대차 +3.9%, 기아 +3.1%) 보이며 지수 방어했습니다.

##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한한령 해제 기대 재부각

3월 21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외교수장은 문화 교류 확대를 재확인했습니다. 왕이 방한 무산 이후 주춤했던 한한령 해제 기대가 재부각되며 엔터(와이지엔터 +4.1%, 에스엠 +2.4% 등), 여행(모두투어 +4.5% 등)이 강세였습니다.

**#특징업종:** 1) 제약바이오: 간암 표적항암제 '리보세라닙' FDA 승인 재도전 의지(HLB +15.5%, HLB제약 +24.3%) 2)한화그룹: 저가매수세 유입 및 경영진 자사주 매수(한화에어로스페이스 +7.5%, 한화 +4.4%) 3)창투사: 퓨리오사AI, Meta 인수 거절(DSC인베스트먼트 -15.4%, TS인베스트먼트 -8.0%)

## 대내외 리스크에 움추린 한국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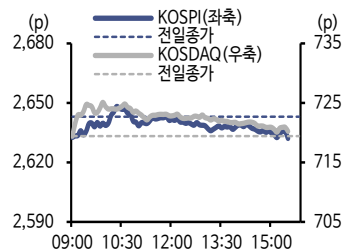
다음 주 4월 2일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가 협상용 카드임이 재차 확인됐지만, 시장은 이를 안도보다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대내적으로는 이번 주 '슈퍼 사법 위크'라고 불릴 만큼 내부 정치 이벤트가 다수 포진해있고, 다음 주(3/31)는 5년 만에 전종목 대상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관망심리 짙게 나타났습니다. 4월 2일 이전까지 관세 노이즈와 함께 내부 이벤트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. **#주요일정:** 1) Michael Barr 연준 부의장 연설(25일 04:10) 2) 미 USTR 공청회 3) 미 3월 S&P Global PMI 예비치(24일 22:45)

## 주식시장 지표

구분	KOSPI	KOSDAQ
증가	2,632.07 (-0.42%)	720.22 (+0.11%)
상승 종목	406(↑11)	737(↑12)
하락 종목	463(↓1)	868(↓3)
주체별	KOSPI	KOSDAQ
개인	-779	585
외국인	61	-337
기관	-34	-27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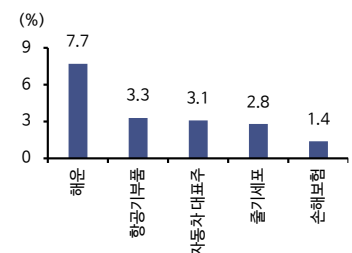
자료: 신한투자증권

## KOSPI, KOSDAQ 장중 흐름



자료: Infomax, 신한투자증권

## 금일 주요 테마 상승률 상위



자료: 신한투자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강진혁).
- ◆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,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.